정책자료

2003년도 에너지 · 자원 정책 방향

김 동 원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

2003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에너지 · 자원업계의 관련기관 단체장을 비롯한 업무 종사자 모두가 건강하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수출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더 높은 8.2% 증가한 1,628억불을 달성했습니다. 무역흑자는 당초 70억불을 예상했습니다만 12월에 주로 LNG와 원유의 수입증가요인 때문에 108억불로서 당초의 생각보다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국내외 에너지시장은 세계화와 민영화, 국제환경규제의 강화 등 새로운 여건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80년대 이후 세계 에너지시장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자유화 · 개방화 확산으로 경쟁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산업에 대한 국제적 환경규제의 강화는 우리의 산업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발전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생활의 안정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성장을 위해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발전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과 에너지산업의 민영화 및 규제완화, 합리적 에너지가격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국내 에너지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기구와의 에너지정책 협력 증대, 동북아 및 남북 에너지협력 등을 통하여 개방형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상승 추세이고 2003년 에너지 소비는 전년대비 4.5% 증가할 전망이며, 전력 및 도시가스 등 고급 에너지 소비는 증가하는 반면, 석유 소비 증가는 감소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급 안정기반 구축을 위해 석유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능력의 지속적인 확충, 전력수급 안정기반 강화를 위해 원전건설 지속 추진 등으로 하절기 전력수급 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전력수요 관리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가스수요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수기지, 배관망 등 가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적극적 자원개발사업 추진으로 자주공급 능력 확충을 위해 국내 자원개발사업의 지속 추진과 해외 자원개발사업의 확대, 자원협력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자원부국과 내실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에너지 안전관리 기반정착을 위해 가스시설 시공자의 보험가입 의무화 등 제도개선, 에너지안전관리 실무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속발전가능한 에너지수급시스템을 구현」 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배출감축의 노력 강화, 절전형기기 등 효율관리제도 대상품목의 대폭 확대, 건물 에너지등급제도 활성화 등 건물·수송 등 부문별 에너지절약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지열, 바이오 등 대체에너지 원별로 대체에너지 설비 공급능력 등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시책 추진, 대체에너지 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대체에너지 3대 중점분야(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선진국과의 기술경쟁 가능성 및 에너지수급 기여도가 큰 기술을 선정하여 중·대형과제 위주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에너지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의 지속적 추진과 석유정제시설 고도화 및 환경관련 시설 투자 확대로 석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전력기술 개발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력 R&D, 전력기술인 양성 등 전력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원전 설계 등 핵심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원전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전기요금체계 내의 과도한 용도별 요금격차를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생산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집단에너지 공급가격을 지역별, 사업자별로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에너지원간의 공정한 경쟁과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등의 측면을 균형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개편을 검토하겠습니다.

IEA(국제에너지기구) 등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선진 에너지정책 및 기술정보 교류를 확대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업계·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미년 새해를 맞아 에너지 및 자원분야의 산업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